

어르신 건강치아 선발대회 열려

천진리 최종명씨 으뜸상... 65세 이상 노인 20명 본선 참가

고성군보건소는 제66회 치아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오후 3시 여성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어르신 건강치아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9면〉

보건소는 이날 선발대회에 앞서 고성지역 65세이상 경로당 이용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구강검진을 실시한 뒤, 20명의 본선 참가자를 선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성원(거진보건지소), 이영호(토성 보건지소), 이예찬(고성군보건소) 등 3명의 치과공중보건사가 20명의 본선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강위



지난 8일 열린 어르신 건강치아 선발대회에서 치과 공중보건인들이 구강상태를 심사하고 있다.

생상태 및 악안면영역, 치아상태, 외관 등 구강검진을 통해 최종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토성면 천진리 거주

최종명 어르신(73세)가 으뜸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어르신들은 스마일상(9명), 고은이상(10명)을 수상했다. 박승근 기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복한 걷기축제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

조했다.

또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주민의식 개선 등 걷기축제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걷기운동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했다.

이날 걷기대회는 고성종합체육관 보조트랙을 출발해 고성중고등학교를 지나 간촌리, 종합체육관으로 돌아오는 총 2km 1시간

구간에서 진행됐다.

한편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고성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아토피 및 천식안심학교 환아 학부모,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주민건강강좌 개최를 한다.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전문가인 김자경 교수(강원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초빙해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방안에 대해 듣는다. 박승근 기자



프로축구 전지훈련

프로축구 수원삼성 선수단 40여명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성남일화 선수단 40여명도 2일부터 7일까지 토성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수원삼성 선수단 훈련 모습. 박승근 기자

가라홀시단(加羅忽詩壇)

고향(故鄕)

남숙희

향별을 지피는
가난한 여인의 손가락 틈으로

문득
시간의 파편들이
나그네 되어,

담쟁이
넝쿨 위로
꿈을 키워 주던
감나무 밤나무.

순아
영아
손잡고 슬래잡기 하던
그 메아리.

산사(山寺)의 지붕틈으로 사라지고
빨간 고추잠자리
만추의 길목에서 날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행어나
이 가슴에 남은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 의식의 제방 너머로

고향은
꿈꾸고
다시 꿈꾸게 하는
하나의 깃발
미지의 마르지 않는
그리움.



-고성고 졸업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고교 교사 생활 30년
-(한글문학회)로 시 등단.

◆시작노트

고향은 끊임없는 우리네 삶의 동지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한 분이 듯이 고향도 슬플때나 기쁠때나 생각나게 하는 화두다.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시간속에 점철되어 있는가? 지금 나는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끔 고향이 그리다.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13]

독립운동가 권원호(權元浩)

1904. 8. 5 ~ 1944. 4. 13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東面 568番地이다.

강원도 회양군 회양읍내 561번지 소재한 강원도 회양감리교회(淮陽監理教會)의 전도사(傳道

師)로 있을 때 일제의 동방요배(東方遙拜)와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를 주일예배 시간에 완강히 거부했다가 1941년 10월에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2년 1월 2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징역(懲役)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옥중에서도 일

제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동방요배 등을 반대하다가 소위 불경죄(不敬罪) 혐의가 추가되었다.

1943년 11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1년형이 가형(加刑)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으며, 1990년에 건국훈

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出典 :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第 1卷, 光復會江原道支部, 1991年, p.496.

註: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